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강원택 지음

강원택康元澤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 정치》,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등 다수의 책을 썼으며 *Electoral Studies* 등 국내외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으로 있다.

E-mail kangwt@ssu.ac.kr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_영국 보수당의 역사

지은이 | 강원택

발행자 | 이홍구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 2008년 6월 23일

2008년 6월 23일 1쇄

편집 | 신영환

디자인 | 유정화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 02-2277-1683(대)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8-89-92395-08-3 93300

값 15,000원

19. 에필로그

_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는 흥미로운 수수께끼이다. 과거를 지켜내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20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존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역사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긴 시간동안 단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보수당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집권하고 있었거나 혹은 제1 야당으로서 집권당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보수당은 제3 정당의 지위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보수당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등장한 자유당이 20세기 초 노동당의 등장으로 정치적인 몰락을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때 보수당의 건재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어느 나라의 정당도 영국 보수당과 같은 성공적인 긴 역사를 자랑하지 못한다.

보수당의 이러한 성공적인 역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보수당이 원래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지주와 귀족계급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구질서를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던 보수당이 오랜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국왕과 세습귀족, 국교회인 성공회, 그리고 농업에 기반한 대지주의 이익 등은 처음 보수당이 탄생했을 때 지켜야 했던 핵심적 가치였다. 이 가운데서 군주제, 국교회 성공회,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과 같은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제도들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선거권의 대규모 확대,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 대영제국의 몰락 등 급격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보수당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 남았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타도의 대상이거나 수구 반동으로 몰려 이미 사라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대중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등장했던 20세기에도 보수당은 지배적인 정당이었다. 1900년 이후 보수당은 1905년부터 1915년까지, 1945년부터 1951년까지, 1964년부터 1970년까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1997년 이후 등 약 30년 정도를 제외하고 20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집권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20세기를 보수당의 세기(Conservative Century)(Seldon & Ball 1994)라 부르기도 한다. 구시대 계급을 대표하는 ‘과거의 정당’ 일 것 같은 보수당은 이처럼 대중 민주주의의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남아 있다.

보수 정치는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책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영국 보수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 성공적인 생존의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보수당은 대단히 권력을 열망하는 정당이다. 권력을 열망하지 않는 정당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만 보수당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고 그 이유도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들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쟁 정당이 권력을 잡아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보수당은 선거 승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독단보다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구 반동적 태도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자신을 맞춰 가려고 했다. 즉 영국 보수당은 이념적 원칙이나 순수성보다 권력 장악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당이

“영국 보수당은 이념적 원칙이나 순수성보다 권력 장악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당이었다

었다. 디즈레일리 수상은 “빌어먹을 너의 원칙을 버려라. 그저 당에 충실해라” Damn your principles. Stick to your party라고 말한 바 있으며, 대처 수상 시절 주요 내각 각료직을 역임한 노만 테빗Norman Tebbit은 “보수당은 무엇보다 권력 장악을 위해 애쓰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보수당은 어디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 항상 주목하며 살펴왔다” The Tory Party, above all, a party dedicated to being in office and to that end has always looked for talent from any quarter(Davies 1995, 9)고 언급한 바 있다. 1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두 사람이 생각하는 보수당의 특성은 동일한 것이다. 원칙이 아니라 집권이 언제나 우선시 되었던 것이다. 영국 보수당을 그 오랜 동안 정치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력으로 살아남게 한 저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보수당의 강한 권력 의지였다.

시대의 변화는 보수당이 지키려는 이해관계나 선호하는 정책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보수당은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했다. 1906년 총선에서 157석을 얻어 400석을 얻은 자유당에 크게 뒤졌지만 1910년 1월 선거에서는 273석으로 곧 회복했다. 1945년 총선에서 213석으로 393석을 얻은 노동당에 참패했지만 1950년 총선에서는 298석으로 회복했다. 권력을 되찾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지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빠른 회복세는 그만큼 보수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유권자의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보수당의 실용성과 적응력 때문이다. 원칙의 실현보다 선거 승리를 통한 권력 장악이 언제나 우선했다.

사실 보수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다면 이제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복지증진이나 사회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수당 정부 하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추진은 이념적인 원칙이나 교조적인 철학의 반영이 아니라 매우 현실 정치적인 이유를 지녔던 것이다. 디즈레일리, 볼드윈, 처칠, 맥밀란이 노동계급의 생활개선과 복지증진 같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것이 당대의 시대적 요구였고 특히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끈 보수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으며 원칙이나 이념에는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다. 선거에서의 승리, 즉 권력 장악이야말로 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보수당은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적인 특성을 보였다.

둘째, 보수당이 성공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유연함 때문이다. 변화를 고집스럽게 거부하지 않았다. 사실 보수당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데는 다소 취약하다. 현상유

“보수당이 성공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유연함 때문이다”

지(status quo)를 원하는 정당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Ball 1995, 26). 바꾸려고 하기보다 지키려는 데서 보수당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당은 수구적이거나 반동적인 정당은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보수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 채 위협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일 보수당이 기득권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만 했다면 영국 역시 프랑스혁명과 같은 급격한 정치적 격변을 경험했을 지도 모른다.

보수당은 영국 사회에서 발생한 변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를 수용했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고 모방했으며, 이전 정부가 커다란 정치적 논란 뒤에 실행한 정책을 그 뒤에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곡물법 폐지, 아일랜드 독립 허용, 상원의 권한을 크게 줄인 의회법 개정, 여성 참정권 허용, 식민지 독립, 시장과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 복지국가 등의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보수당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집권한 이후 이를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 모두 수용했다.

변화를 수용하면서 보수당은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대토지 소유 계급과 귀족들의 정당인, 대영제국의 정당, 상공업자의 정당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유연성 때문이었다. 보수당은 오래된 정당Old dog이지만 새로운 변화New tricks에도 수용적이었던 것이다(Davies 1995, 9-39). 후일 수상이 된 이튼은 1947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난폭하고 잔인한 자본주의의 정당이 아니며 결코 그랬던 적도 없다”(Ball 1995, 31)고 말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복지국가 정책이 유권자들의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당 역시 그런 입장에 반대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화를 수용해야 했고 스스로 변해야만 했다.

1846년 곡물법을 둘러싼 당의 분열이 발생한 이후 보수당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당의 분열이나 집단적 탈당을 경험하지 않았고 외부 정치세력을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하나의 조직으로 생명력을 갖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정치

적 조직체로 이어져 왔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명칭, 목적과 신념 하에 집단이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수당의 역사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여 그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단절적인 형태로 이어져 온 것이다.

사실 보수당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지도자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갈등과 단절을 피하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쉘튼과 스노우든은 영국 보수당의 역사가 9명의 위

“보수당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역량 때문이다

대한 지도자가 이끈 ‘각각 다른’ 보수당이었다고 주장한다(Seldon & Snowdon 2004, x). 그들은 윌리엄 소 피트, 리버풀 경, 로버트 필, 벤자민 디즈레일리, 솔즈베리 경, 스탠리 볼드윈, 윈스턴 처칠, 해럴드 맥밀런, 그리고 마가렛 대처 등이 보수당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고 있다.

보수당이 과거의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역량에 크게 의존했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보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한 정책에 대해 집권 후 이를 되돌리자고 하는 의견이 보수당 내에서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반대를 물리치고 변화된 시대에 당을 유연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 성공한 보수당 지도자들의 리더십이었다. 때문에 모든 보수당 지도자들은 기회주의자 혹은 배신자^{opportunism or betrayal}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Chamley 1996, 1). 보수당의 역사에서 당수가 주창하고 추진한 정책의 내용이 새로운 보수주의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셋째,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넓혀 왔다. 배타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소유 계급, 귀족의 집단으로 출발한 보수당은 산업혁명 이후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떠오른 상공업자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배타적인 집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계층들과 융합했다.

들을 끌어들이고 이들과 하나로 융합했다. 노동계급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이후 당 조직의 강화를 통해 이들을 보수당의 지지자들 *working class Tory*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영국의 지배계급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의 지배계급처럼 배타적인 계급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세력을 당내에 수용했던 것이다.

상공업자 출신의 볼드윈 수상, 중산층 출신의 자수성가형 히스 수장과 대처 수상,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서 일했던 메이저 수상 모두 보수당이 배출한 수상들이다. 보수당은 이처럼 귀족과 기득권층의 정당, 이튼과 옥스브리지⁶⁹⁾ 출신만의 배타적 정당이 아니라 다수를 포용해 낼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모를 위해 애썼다. 과거 보수당의 반대편에 서있던 이들도 끌어들이었으며 심지어 당을 이끄는 중책을 맡기기도 했다. 자유당 글래드스톤이 추진한 아일랜드 독립 법안에 반대하며 자유당에서 떨어져 나온 연합과 자유당이나, 관세개혁에 반발하여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옮겨갔던 처칠을 다시 받아들였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보수당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수호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은 디즈레일리나 볼드윈처럼 필요하다면 사회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정당, 제국의 정당과 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수당의 전통에 포함시켰다. 디즈레일리가 보수당의 기반을 닦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기존 질서와 헌정체제의 수호라는 보수당의 전통적 가치에 사회개혁과 애국주의 정당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디즈레일리는 사회개혁을 통해 보수당을 어느 한 계급의 이

69)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을 합쳐 일컫는 말이다.

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모두의 정당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일국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의 전통은 보수당의 정치적 명분과 기반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제국의 정당임을 강조하며 국가이익의 수호자, 유니온 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높였다. 이러한 애국주의 정당에 대한 강조가 애국심과 제국의 자긍심으로 계급 적대감을 퇴색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모든 계급이 국왕과 유니온 잭(Union Jack) 그리고 국가의 상징에 감동하고 보수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만은 분명하다.

“일국 보수주의의 전통은 보수당의 정치적 명분과 기반을 확대시켰다.”

보수당의 성공적인 역사는 행운도 따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의회법 개혁이나 아일랜드 독립 허용 등 자유당의 정국 주도에 끌려가던 보수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발발도 집권 초 어려움을 겪던 대처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이 없었다면 1984년 총선에서의 압승과 뒤이어 강력하게 추진된 대처혁명은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또한 보수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자유당이나 노동당 등 경쟁 정당의 내분과 분열에 힘입어 성공했던 적도 적지 않았다.

보수당의 긴 역사 동안 언제나 성공적인 이야기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보수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보다 당내 갈등과 분열 그리고 취약한 당 지도자의 리더십이었다. 보수당의 역사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하는 것은 보수당의 정치적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포용력 있는 리더십은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하는 당내 두 파벌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하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리더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00년대 초

당을 분열시킨 관세개혁을 둘러싼 벨포어의 조심스러운 중도적 정책은 당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대처의 실각까지 몰고 온 유럽 이슈를 둘러싼 존 메이저의 중도적이고 조심스러운 관망 정책은 당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1997년 보수당의 참패의 한 원인이었다. 정책 변화를 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히스 역시 당을 어렵게 만들었다. 올바른 판단과 신념, 확신을 갖지 못한 지도자 아래서 보수당은 분열했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곤 했다.

한편, 영국 보수주의는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영향력과 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지닌다. 로마 교황이 주도하는 가톨릭으로부터 성공회를 지키고, 프랑스 혁명과 공화정으로부터 군주제를 지키고, 사회주의로부터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보수당의 역할과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보수당의 이러한 특성이 애국주의 정당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섬나라인 영국의 편협함을 보수당이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영국의 이익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보수당의 애국주의적 전통은 종종 보호주의적 입장과 연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종종 보수당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로버트 필의 곡물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영제국 국가 간의 배타적 교역관계를 강조한 관세개혁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유럽단일화폐 등 유럽통합 참여를 둘러싼 논란 등은 모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다. 보수당은 개방에 대해 언제나 소극적이었다. 특히 유럽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보수당을 분열시키는 핵심적 의제가 되고 있다. 보호주의적 특성을 갖는 애국주의 정당의 전통은, 유럽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영국

보수당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당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97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연속 세 차례 총선에서 패배하여 10년 이상 야당의 신세에 머물러 있다. 유럽통합 참여나 당의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당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 그로 인해 유권자의 신뢰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끊임없는 갈등과 내부 분열 속에서도 분당(分黨)이나 자기파멸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자기혁신의 기회로 삼곤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수당은 다시 집권에 성공할 것이다. 보수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집권이기 때문이다. 그 때 보여줄 보수당의 모습은 이 책에서 논의한 보수당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과 유연한 대처로 끊임없이 변신해 온 것이 보수당의 성공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전통이 유지되는 한 영국 보수당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과 유연한 대처로 끊임없이 변신해 온 것이 보수당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Ball, Stuart. 1995. *The Conservative Party and British Politics 1902-1951*. Harlow: Pearson Education.
- Bentley, Michael. 1996. *Politics without Democracy 1815-1914: Perception and Preoccupation in British Government*.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 Bentley, Roy, Alan Dobson, Maggie Grant, and David Roberts. 2000. *British Politics in Focus*. Lancs: Causeway Press.
- Blake, Robert. 1970. *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Churchill*. London: Eye & Spottiswoode.
- Butler, David and Gareth Butler. 1994. *British Political Facts 1900-1994*. London: Macmillan.
- Childs, Sarah. 200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Patrick Dunleavy, Richard Heffernan, Philip Cowley and Colin Hay (eds.).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8*. London: Macmillan, pp. 56-76.
- Childs, David. 1992. *Britain Since 1945: A Political History*.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 Charmley, John. 1996. *A History of Conservative Politics 1900-1996*. London: Macmillan.
- Clarke, D. 1973. *The Conservative Party*. London: Conservative Central Office.
- Crowson, N. J. 2001. *The Conservative Party since 1830*. London; Longman.
- Davies, A. J. 1995. *We, the Natio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Pursuit of Power*.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 Gamble, Andrew. 1988.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London: Macmillan.
- Hawkins, Angus. 1998. *British Party Politics, 1852-1886*. London: Macmillan.
- Hill, Brian. 1996. *The Early Parties and Politics in Britain, 1688-1832*. London: Macmillan.
- Hollowell, Jonathan. 2003. *Britain Since 1945*.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James, R. R. (ed.) 1967. *Chips: The Diaries of Sir Henry Channon*.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Lane, Peter. 1974. *The Conservative Party*. London: B T Batsford.
- Laytone-Henry, Zig (ed.). 1980. *Conservative Party Politics*. London:

- Macmillan.
- Lee, Stephen. 1994. *Aspects of British Political History 1815-1914*. London: Routledge.
- Lloyd, T. O. 1986. *Empire to Welfare State: English History 1906-1985*. Thi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an, Kenneth (eds.). 1988. *The Oxford History of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영국사학회 옮김. 1997. 《옥스퍼드 영국사》. 한울.
- Norton, Philip (ed). 1996. *The Conservative Party*. London: Prentice Hall.
- Norton, Phillip and Arthur Aughey. 1981. *Conservatives and Conservatism*. London: Temple Smith.
- Pugh, Martin. 1982. *The Making of Modern British Politics 1867-1939*. Oxford: Basil Blackwell.
- Ramsden, John. 2002. *Man of the Century: Winston Churchill and His Legend since 1945*. 이종인 역. 2004. 《처칠: 세기의 영웅》. 을유문화사.
- Scruton, Roger. 2001. *The Meaning of Conservatism*. Basingstoke: Plagrave.
- Seldon, Anthony and Peter Snowdon. 2004. *The Conservative Party: An Illustrated History*. Pheonix Mill: Sutton Publishing.
- Seldon, Anthony and Stuart Ball. (eds.) 1994. *Conservative Century: The Conservative Party Since 19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Jeremy. 1997. *The Taming of Democracy: The Conservative Party, 1880-1924*.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 Smith, Jeremy and Iain McLean. 1994. “The Poll Tax and the Electoral Register”, in Heath, Jowell, and Curtice with Taylor (eds.) *Labour’s Last Chance? The 1992 Election and Beyond*. Aldershot: Dartmouth, pp.229-253.
- Speck, W. A. 1993. *A Concise History of Britain*. 2002. 이내주 옮김.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개마고원.
- Stewart, Robert. 1989. *Party and Politics 1830-1852*. London: Macmillan.
- Thatcher, Margaret. 1993. *The Downing Street Years*. London: Harper Collins.
- 강원택. 2005. “1970년대 영국 사회와 불만의 겨울”. 오세훈 외. 《우리는 실패에서 성공을 본다》. 황금가지, pp. 21-36.
- 강원택. 2003. “영국의 정당 민주주의 : 형성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Vol.11, pp. 7-37.
- 고세훈. 1999.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동아시아연구원EAI를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강문선	김석우	김정은	문성환	서은숙	우병익	이영복	장순희	차순만
강영준	김석준	김정하	문윤성	서의석	원종숙	이영호	장원호	채혜경
강윤관	김석진	김종진	문지옥	서정원	원종애	이용자	장의영	최 건
강찬수	김철화	김준희	문진성	서창식	유문종	이원종	장진호	최관주
강홍렬	김성수	김지영	민병문	선승훈	유성수	이윤미	장태곤	최동규
고승수	김세종	김지정	민선식	성정은	유옥상	이재섭	장희진	최복대
고은희	김수진	김지현	민선영	소지형	유창수	이재원	전경수	최신림
고형식	김시연	김진기	민지숙	손재키	육은경	이정민	전명선	최윤준
고혜선	김신숙	김진영	박경수	송대창	윤상민	이정은	전혜경	최종호
공성원	김연옥	김진혁	박규호	송우엽	윤용집	이정은	정 준	최철원
곽노전	김영구	김창욱	박근아	송원진	윤정림	이정호	정금라	최현순
곽준엽	김영목	김철영	박대균	송지연	윤혜성	이종수	정기용	추기능
구상환	김영미	김하정	박미나	송홍선	은종학	이종진	정랑호	하영호
구윤정	김영섭	김현전	박상용	신권식	이 근	이종진	정무섭	한계숙
구준서	김영원	김형국	박상준	신동원	이 항	이지원	정병갑	한금현
권용순	김용규	김형재	박성만	신동준	이경애	이지원	정아영	한선호
금영수	김용남	김형준	박수진	신부희	이근수	이지희	정연태	한숙현
김 답	김용수	김형찬	박순휘	신성호	이규호	이진아	정영국	한승혜
김 욱	김용준	김효신	박용준	신영준	이근우	이창현	정영진	한일봉
김 준	김용직	김희동	박이나	신영환	이기황	이충형	정원철	한정원
김건호	김용호	김희정	박재준	신윤경	이내영	이태석	정재호	한준희
김건훈	김우상	김희진	박정호	신준희	이달원	이혜완	정진영	한지현
김경순	김 욱	김희진	박준형	심윤보	이동욱	이현옥	조규완	한하람
김경지	김 원	나정원	박진원	안건영	이동찬	이혜민	조동현	한홍일
김관호	김 원	남윤호	박찬근	안용찬	이동훈	이홍구	조성재	현정은
김국형	김월명	남태희	박찬선	안준모	이마리	이홍규	조은희	홍석현
김기정	김유상	노영훈	박휘락	안중익	이미혜	이홍미	조홍식	황 수
김기준	김유주	노익상	방효은	양순화	이민교	이효재	주 한	황석희
김남이	김윤호	노재경	방효은	양주명	이민자	이희정	주미야	황성진
김동진	김은숙	노호식	백승태	양호실	이병인	임명수	주영아	황의숙
김동은	김은영	노환길	백진규	엄찬섭	이상구	임상균	주원사우회	황정원
김만호	김은지	라종일	백혜영	여동찬	이상협	임성빈	주진균	황효진
김미영	김인섭	류길재	서미혜	예병민	이상호	임재환	지만수	
김병국	김인혜	류재희	서봉교	오명학	이선주	임현모	지혜리	
김병표	김재두	마금희	서상민	오미순	이성량	임현진	진선희	
김부용	김정수	마정재	서영민	옥우석	이승화	임홍재	진지운	
김상기	김정은	명정모	서용주	왕 서	이여희	장대환	차국린	